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across different channels.



'사임당, 더 히스토리' 로 10년만에 복귀 이영애

내년 하반기 방송예정인 '사임당, 더 히스토리'(이하 '사임당') 기자간담회에 나온 이영애(사진)는 간담회 내내 '엄마' 이영애의 모습을 강조했다. 지난 30일 오전 강원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영애는 '대장금' 이후 10년 만의 복귀작으로 '사임당'을 택한 이유에 대해 "재미가 있으면서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사임당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여자의 일생을, 고민을 풀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야기다. 500년 전에 그 시대에 살았던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의 고민은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똑같다고 생각한다. 사임당 이름을 빌어서 여자들의 삶은 무엇인가를, 1인 2역을 맡아서 해보고 싶었다.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어떤 여자들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많은 분이 생각했던 사임당은 5만원짜리에 박제 됐다는, 고리타분한 인물이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또 다른 이유는 재미가 있다. 1인 2역이라는 도전은 배우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도전이기도 하다. 이영애는 이번 작품이 또 다른 한류 열풍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작품을 하다보면 좋은 기운이 흐르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장금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배우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엄마 입장에서 기도도 하는데, 아기 아빠랑 오죽헌에 왔었다. 큰 나무에 동전을 넣고 좋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웃음). 오죽헌 나무에 기도하고, 파주에 율곡 가족묘가 있는데 거기서 사임당과 율곡 묘에 가서 기도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기 아빠랑 아이들하고 같이 왔다. 동전 넣고 기도했던 곳에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었다."

EBS 1

Table listing EB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사이, 새 앨범 '칠집싸이다' 오늘 공개

'월드 스타' 싸이가 7집 '칠집싸이다' 두 돌아왔다. 싸이가 국내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2013년 4월 싱글 '젠틀맨'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새 앨범을 내는 것은 2012년 7월 '강남스타일'이 수록된 '싸이 6집'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난 사이(사진)는 "머릿속에 많아진 사공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제대 후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고민 끝에 제가 찾은 초심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따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싸이는 "왜 예전같이 국내 팬들이 듣고 싶던 음악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노래로 해외 시장에서 먹혔느냐'는 분도 있다"며 "호불호가 나뉘는 것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는 순리대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게 '아무 생각 없이 얻어 걸린' 사례였다면 '젠틀맨'은 처음부터 흥행을 의도한 곡이었다"며 "이번 음반은 '의도하지는 않되, 혹시 걸릴까?' 하는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웃었다.

'월드 스타' 싸이가 7집 '칠집싸이다' 두 돌아왔다. 싸이가 국내에서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2013년 4월 싱글 '젠틀맨' 이후 2년 8개월 만이며, 새 앨범을 내는 것은 2012년 7월 '강남스타일'이 수록된 '싸이 6집'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난 사이(사진)는 "머릿속에 많아진 사공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털어놨다."

제대 후를 얘기하는 것인지요. 고민 끝에 제가 찾은 초심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따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싸이는 "왜 예전같이 국내 팬들이 듣고 싶던 음악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노래로 해외 시장에서 먹혔느냐'는 분도 있다"며 "호불호가 나뉘는 것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는 순리대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게 '아무 생각 없이 얻어 걸린' 사례였다면 '젠틀맨'은 처음부터 흥행을 의도한 곡이었다"며 "이번 음반은 '의도하지는 않되, 혹시 걸릴까?' 하는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웃었다.

노홍철 예능 복귀 "초심으로 돌아갈 것"

방송인 노홍철(36)이 tvN 예능 프로그램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노홍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노홍철이 12월 말 첫 방송 되는 tvN '노홍철 김바닥 쇼'(가제)와 '내 방의 품격'(가제) 진행을 맡았다"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노홍철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별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라면서 "과분한 사랑을 줬고 더 큰 실망을 받았을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한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홍철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별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한다"라면서 "과분한 사랑을 줬고 더 큰 실망을 받았을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한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